학교 설문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묻는 법

똑똑 · 에디터 나루 · 발행 2026.10.06

좋은 질문을 많이 쓰기보다 답을 내는 데 꼭 필요한 정보만 남기는 연습입니다.

똑똑 자체 작성 교육 해설입니다. 본문의 학교·학생·수치·작품은 가상 사례로 명시했으며 실제 학교의 승인·평가·법적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쉬운 설명

설문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알고 싶은지 한 문장으로 적어요. 그 답을 내는 데 쓰지 않을 정보라면 묻지 않아요. 익명이라고 써도 조합하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봐요.

핵심

- 질문마다 목적과 필요한 자료를 한 줄로 연결합니다.
- 이름을 지워도 반·성별·자유 서술을 합치면 식별될 수 있습니다.
- 학교 설문은 교육 활동 예시이며 실제 수집은 담당 학교의 절차를 따릅니다.

출발점 · 질문의 목적을 먼저 고정하기

“급식이 불편한 점을 찾자”는 목적이라면 메뉴별 만족도와 개선 의견이 중심입니다. 이름·전화번호는 이 질문에 답하는 데 대개 쓰이지 않습니다. OECD의 개인정보 지침은 수집 범위와 목적을 제한하고 목적 밖 이용을 경계합니다. 목적에서 거꾸로 질문을 고르는 방식이 첫 번째 점검입니다.

질문을 한 개 더 넣을 때마다 “이 답으로 어떤 결정을 바꿀 수 있나”를 물어봅니다. 답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호기심 문항은 응답 부담만 늘릴 수 있습니다. 설문이 정말 필요한지도 먼저 보세요. 이미 학교에 있는 익명 집계로 충분하다면 새 응답을 받지 않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설계 · 식별 가능성을 항목별로 살피기

이름을 묻지 않으면 곧바로 익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가 적은 반에서 학년·반·특정 동아리·긴 자유 응답을 함께 받으면 누가 썼는지 짐작될 수 있습니다. AAPOR는 이름을 제거한 공개 자료도 인구통계 정보와 응답의 조합으로 재식별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학교에서는 작은 집단으로 쪼개 공개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민감한 경험을 캐묻는 문항은 수업용 만족도 조사와 성격이 다릅니다. 학생이 답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원자료를 보는지, 언제 지우는지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UNICEF의 윤리 정책은 동의·아동의 참여 의사, 비밀 보장, 자료 관리가 수집부터 공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원칙을 읽었다고 모든 조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사례 · 가상 급식 설문: 질문을 덜어내기

초안 문항	목적과의 관계	수정
이름·학번	메뉴 불편 파악에 불필요	삭제
어제 메뉴에서 남긴 음식	기억에 의존하고 개인 추적 우려	선택지형 메뉴 경험으로 변경
불편했던 점 한 가지	개선 항목을 찾는 데 유용	선택 응답, 개인정보 쓰지 말라는 안내
학년과 반	작은 집단 식별 가능	필요한 최소 범위의 큰 집단으로만 검토

설명용 가상 학교 사례입니다. 실제 학교의 조사 승인이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결과 공개 · 원자료와 발표 자료는 다르게 만들기

설문을 받은 목적이 전체 개선 의견이라면 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할 이유는 약합니다. “3학년 2반 한 명의 답”처럼 작은 집단을 따로 적으면 익명 약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는 응답 수, 질문 문구, 응답하지 않은 사람의 존재를 함께 적고 충분히 큰 묶음으로 요약합니다. 자유 답변은 고유한 일화나 이름이 드러나는 부분을 제거하거나 아예 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례와 한계 · 개인 연락이 정말 필요할 때도 설문에 섞지 않기

예를 들어 행사 참가 신청은 연락을 위해 이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 의견 조사와 목적이 다르므로 수집 목적·열람자·보관 기간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생이 동의했으니 무엇이든 받아도 된다”는 결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 활동에서의 예시 설계와 실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행 전 점검 · 세 줄로 끝내는 문항 검토

첫째, 알아볼 결론을 문장으로 씁니다. 둘째, 문항 옆에 그 결론과 연결되는 이유를 적습니다. 셋째, 응답자에게 보일 안내에 선택 가능 여부, 결과 공개 범위, 담당자와 보관 방식을 분명히 씁니다. 어느 항목도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설문은 아직 배포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다시 묻기 · 삭제 후보 문항을 고르는 회의

설문 초안을 모둠에서 돌려 볼 때에는 질문을 더할 이유보다 남길 이유를 먼저 말합니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는 말은 현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문항을 지운 뒤 어떤 판단이 불가능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면 그때 다시 넣을지 토론합니다. 이 순서는 수집 항목이 습관적으로 늘어나는 일을 막습니다.

답을 모으는 사람과 분석하는 사람이 달라도 같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원자료를 내려받은 파일, 수업 화면의 표, 발표 슬라이드는 각각 노출 가능성이 다릅니다. 발표용 표를 만들 때 개인 응답을 옮겨 놓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집계만 남깁니다. 설문을 끝낸 뒤에도 처음 정한 목적보다 넓게 자료를 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도서관 좌석 이용 만족도” 설문에 이름·학번·이용 시간·불편 사항을 넣었습니다. 두 항목을 고치고 이유를 쓰세요.

확인 설명

가상 예시 답: 개인별 후속 연락 계획이 없다면 이름과 학번을 빼고, 이용 시간은 시간대별 혼잡을 비교할 목적이 있을 때만 큰 시간 구간으로 묻습니다. 불편 사항은 선택 응답으로 두고 개인 이름을 적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익명 설문이면 응답을 마음대로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응답 조합이나 서술형 문장으로 개인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 범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학년을 묻는 것 자체가 금지인가요?

그런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목적에 필요한지, 다른 항목과 합쳐 식별될 가능성이 있는지, 학교 절차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원문과 출처

- OECD · Privacy Guidelines,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Application — https://legalinstruments.oecd.org/public/doc/114/body-text.en.html: Collection Limitation 7, Purpose Specification 9, Use Limitation 10: 수집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 밖 사용을 제한한다. 한계: 국제 원칙이며 한국 학교에 대한 법적 허가·예외 판단 자료는 아니다.
- UNICEF · Policy on Ethics in Evidence Activities Involving People as Participants or Subjects — https://www.unicef.org/documents/policy-ethics-evidence-activities-involving-people-as-participants-subjects: 문서 소개의 meaningful consent/assent, confidentiality, privacy, data management 항목: 아동 참여 자료 수집 전 과정의 윤리 점검. 한계: UNICEF 사업 정책이며 특정 학교의 법적 절차를 대체하지 않는다.
- AAPOR · Best Practices for Survey Research — https://aapor.org/standards-and-ethics/best-practices/: Planning Your Survey, Designing your questionnaire, safety/confidentiality/comfort: 질문 목적, 단일 개념, 비유도 표현, 응답 거부·민감 정보·식별 가능성. 한계: 일반 조사 실무 지침이며 학교 승인이나 표본 대표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survey-data-minimization